

##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의 의미

양경희<sup>1</sup> · 고가연<sup>2</sup> · 고정옥<sup>3</sup> · 김란<sup>4</sup> · 김지윤<sup>5</sup> · 김윤영<sup>6</sup> · 박병준<sup>7</sup>  
박순옥<sup>8</sup> · 박선정<sup>9</sup> · 서인순<sup>10</sup> · 손유림<sup>11</sup> · 오수민<sup>12</sup> · 전경덕<sup>13</sup> · 진은영<sup>14</sup>

<sup>1·14</sup>원광보건대학교 · <sup>2</sup>강릉영동대학교 · <sup>3</sup>전북과학대학교 · <sup>4</sup>동아보건대학교 · <sup>5</sup>혜전대학교 · <sup>6</sup>광양보건대학교  
<sup>7</sup>대구보건대학교 · <sup>8·9</sup>여주대학교 · <sup>10·12</sup>수원여자대학교 · <sup>11</sup>포항대학교 · <sup>13</sup>삼육보건대학교

### Meaning of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in Nursing Junior College Students

Kyung Hee, Yang<sup>1</sup> · Ga Yeon, Ko<sup>2</sup> · Jeong Ok, Ko<sup>3</sup> · Ran, Kim<sup>4</sup> · Jee Yoon, Kim<sup>5</sup>  
Yoon Young, Kim<sup>6</sup> · Byung Jun, Park<sup>7</sup> · Soon Ok, Park<sup>8</sup> · Sun Jung, Park<sup>9</sup> · In Soon, Seo<sup>10</sup>  
Yu lim, Son<sup>11</sup> · Su Min, Oh<sup>12</sup> · Kyeong Deok, Jeon<sup>13</sup> · Eun Young, Jin<sup>14</sup>

<sup>1·14</sup>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 <sup>2</sup>Gangneung Yeongdong Univ · <sup>3</sup>JeonBuk Science College  
<sup>4</sup>Donga Health College · <sup>5</sup>HyeJeon College · <sup>6</sup>Gwangyang Health Sciences University  
<sup>7</sup>Daegu Health College · <sup>8·9</sup>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 <sup>10·12</sup>Suwon Women's University  
<sup>11</sup>Pohang University · <sup>13</sup>Sahmyook Health University College

####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third- and fourth-year nursing students in junior colleges in an effort to shed light on the nature of the meaning of their experiences to have a profound understanding of it. **Methods** :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0 selected juniors and seniors who majored in nursing science in 10 junior colleges across the nation. The students had experience of practice in adult health nursing, women's health nursing, child health nursing and gerontological nursing.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gather data on their experiences of practice from July 21 to August 6, 2017.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olaizzi's method. **Results** : 36 meanings were constructed, and 13 themes and six theme clusters were extracted: "Ambivalence about field practice," "confused identity," "lack of hands-on nursing experience and diversity," "unfriendly environments for practice," "being on the way to becoming a nurse," and "practical education of higher quality is desperately needed." **Conclusion** : Given the findings of the study, how to step up the development of clinical practice in junior colleges should carefully be considered, and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ograms on clinical practice proces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qualification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s future professional nurses.

**Key words** : Critical practice, Experience, Nursing students

교신저자 : Sun Jung, Park / (12652) 338 AD, Sejongno, Gyeonggi-do, Korea

Tel : 010-8799-8973, Fax : 031-885-7041, E-mail : bun8973@naver.com

접수일 : 2017.08.24 / 수정일 : 2017.08.31 / 게재확정 : 2017.09.04

\* 이 논문은 한국전문대학 간호학과(부)장 협의회 한국간호연구학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목표는 간호 대학생들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간호사로서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이론적 지식과 간호기술 방법을 학습하고 임상실습의 경험을 통해 간호 실무를 습득하는 과정이다[1,2]. 간호교육에서의 임상실습 교육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이론에서 익힐 수 없었던 간호기술 뿐만 아니라 간호사로서의 가치관과 태도를 직접실무에 적용하는 현장교육으로[3,5], 이를 토대로 간호 대학생은 전문직기술을 갖춘 간호사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

Kim 등[6]은 간호 대학생들의 첫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간호이론을 실무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더불어 생소함과 부담감으로 실습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상실습을 경험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실습을 통해 직접 만져보고 관찰하는 것을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으로 인식함으로 인해 높은 관심과 흥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7].

그러나 Park과 Park[8]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교육이 간호대 학생이 간호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서의 실습과 환자를 접하게 되면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간호 대학생들은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임상 실습을 나간 현장 상황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게 되면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실습교육을 어려워하고 있다[5]. 또한 실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의 임상실습상황에 대한 적응도와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6]. 간호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원으로는 이론과 실무 현장과의 차이로 인한 갈등, 의료인 및 병원직원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대인관계에서의 경험부족, 단순 간호실무의 반복, 역할부재, 전문지식 부족 및 자신감 결여 등으로 보고되었다[8].

이러한 다양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상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저하되고[9], 불안, 분노, 피로와 같은 정신건강상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며, 간호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여 학문에 대한 회의와 좌절감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10].

간호대학생들은 낯선 환경에서 시행되는 실습 교육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등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심한 경우에는 자신과 간호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미래에 회의를 갖게 되기도 한다[7].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간호대학생 수의 증가로 인해 우수한 실습 기관의 확보가 어렵고, 현장교육 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로 간호대학생들은 직접 간호를 수행하기보다는 관찰 위주의 제한된 실습교육을 수행하고 있는데[5,11-12], 이는 간호사의 간호대학생에 대한 관심부족, 방치된 실습지도, 책임성 있는 임상현장지도자의 부재로 이어지면서 우호적이지 못한 임상실습현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임상실습에서 느끼는 간호대학생들의 부정적인 면을 완화하거나 전화위복의 상태로 만들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의 효과를 가하여 위해서는 실습교육방법의 구체화, 임상실습 현실 직시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교육은 대부분이 대학의 부속기관이 아닌 임상실습하기에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실습을 하고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 실습을 담당하는 대학에서는 간호교육의 일차적인 목표인 전문적인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는 임상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임상실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현장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에 관한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과 만족도, 스트레스, 셀프 리더십, 자아효능감, 자기주도성, 문제해결과정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9-13],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한 양적 연구들과

[1,14-15]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간호학실습, 기본간호학 임상실습, 첫 학기 임상실습에서의 경험을 다룬 질적 연구[16,18]가 선행 되어 왔다. 그러나 전문대학 간호대학생들이 느끼는 실습경험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현재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방법인 Colaizzi [19]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전문대학 임상실습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 모색과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으로 임상 수행능력이 뛰어난 간호사를 배출하는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이 무엇인지 서술하여 그 경험에 대한 의미의 본질을 탐색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 II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문대학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병원 임상실습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Colaizzi [19]의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 2. 연구 참여자 선정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참여자는 전국 10개의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을 대상으로 성인간호학실습, 여성간호학실습, 아동간호학실습, 노인간호학실습 등을 경험한 학생이다. 참여자는 10개 학교에서 20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참여자에게 구두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면담 시

녹음을 하는 것과 비밀 보장의 사실을 설명하고 모든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녹취된 내용과 필사본 및 설문지의 자료는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참여에 대한 보답으로 소정의 사례물을 제공하였다.

## 3.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

자료는 각 연구자들에 의해 수집되었고 기간은 2017년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였다. 면담 장소는 연구자의 연구실이나 연구 참여자가 편안해 하는 장소를 선정하였으며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 실시하였다. 개인 심층면담의 소요시간은 1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였으며, 각 1인당 1회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일상적인 대화로부터 시작하여 “임상실습 경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개방형 질문을 하여 참여자가 편안하게 진술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주 질문과 더불어 필요시 보조질문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중 연구 참여자의 시각에서 체험을 이야기하도록 하였고, 자료가 포화되어 더 이상의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아 포화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면담을 종료하였다. 모든 면담은 녹음을 진행하였고, 추후 분석을 위해 자료를 수집한 연구자가 녹취된 내용을 확인하며 필사하였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에 대하여 현상학적 분석방법인 Colaizzi(1978)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인 방법은 연구 대상자의 인간 경험의 의미와 그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밝히는 귀납적인 연구 방법이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면담 사항을 경청하며 임상실습 중 경험한 느낌에 대한 총체적 경험에 대한 대상자의 느낌을 성찰하였다. 다음으로

필사된 자료를 정독하며 임상실습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과 구절들을 선정하였다. 추출된 문장과 구절로 이루어진 진술들로부터 조금 더 보편적이며 추상적인 의미를 구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대상자가 말한 의미를 왜곡하지 않고 대상자가 말한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연구자가 구성한 의미들을 비교하면서 비슷한 사항끼리 구성하여 보다 추상적인 주제들을 도출해 내었다. 이 과정에서는 연구의 주제들이 대상자가 의미하고자 하는 원래 자료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반복하여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통합하고 최종 기술하는 단계로 비슷한 주제끼리 모으는 단계를 거쳐 결과적으로 대상자들의 총체적인 경험이 드러나는 주제모음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된 주제모음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3명의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자가 도출해낸 경험의 본질이 대상자 자신이 경험한 사항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다.

## 5. 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Guba & Lincoln [20]의 4가지 준거인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 확인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 현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고, 이들의 다양한 시각과 관점이 반영된 체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면담은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진행하였고, 연구참여자가 말한 그대로를 필사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연구자는 판단중지를 이용하여 면담과 분석 과정에 선입견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분석한 자료와 결과 등을 함께 토론하여 분석과 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로 부터 피드백을 받아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연구 참여자 검증과정을 거쳤다. 적합성은 연구결과를 비슷한 참여자들에게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자료

수집 절차를 제시하고 충분한 자료 제공과 풍부한 기술을 통하여 적합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감사가능성은 Colaizzi[21]가 제시한 자료수집과 분석절차 등을 제시하고 주제와 주제모음을 설명하는 원자료를 결과에서 제공하였다. 확인가능성은 연구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중립성을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적합성 그리고 감사가능성을 확보하여 편견이 최소화되고 중립성이 최대한 확보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Table 1).

##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현장실습경험에 대한 현상에서 수집된 자료로 본질적 구조는 “주변인에서 주체자가 되어감”으로, 의미 있는 진술문(significant statement)은 143개이었으며, 이를 통해 의미 구성(formulated meaning)은 총 36개였다. 이를 통해 13개의 주제(themes)와 6개의 주제모음(theme cluster)이 도출되었다.

### 주제모음 1. 현장 실습에 대한 양가감정

주제모음 1은 두개의 주제로 ‘현장실습에 대한 기대감’, ‘실습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성되었다.

간호 대학생들은 처음으로 나가는 현장실습에서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병동에 투입되어 간호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설레임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습이라는 환경에 긴장되고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실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양가감정을 보였다.

#### 1) 현장실습에 대한 기대감

학생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실습에서의 배움에 대한 기대와 간호사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환자를 간호하는 것을 보고 실제로 배우면 나중에 간호사가 되어 직접 간호를 할 때 실수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더 좋은 간호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실습을 시작하였다.

**Table 1.** Formulated Meaning, Themes, Theme Cluster

Formulated meaning	Themes	Theme cluster
1) Being excited about nursing behaviors.	1) Expectations for field practice	1. Ambivalence about field practice
2) Vague expectations for practice.		
3) Being worried about whether I can do well on the spot.		
4) Feeling a big burden over dealing with new people and patients in person.		
5) Cannot discriminate between what I must do and must not.	3) Losing my own presence.	2. Confused identity
6) Just trying to read other people's faces and speaking with meaningless gestures.		
7) Feeling daunted and intimidated.		
8) Realizing what my own future will be like when looking at a new nurse who was scolded in front of students.		
9) Feeling skeptical when nurses asked negative questions about nurses.		
10) Being sorry about observation-centered practice	5) Just remaining as an onlooker and not having sufficient chances to learn.	3. Lack of hands-on nursing experience and diversity
11) Not having enough chances to learn as they didn't even let me observe.	6) Yearning for hands-on experience and for getting training in diverse departments.	
12) Being sorry about being unable to get training in diverse departments.		
13) Longing for hands-on experience instead of merely understanding the position of patients.		
14) Being sorry about being treated as nurse assistants.	7) Failing to get recognized.	4. Unfriendly environments for practice
15) Feeling left alone due to indifference.		
16) Being regarded as an invisible person.		
17) Having difficulty dealing with patients due to poor communicative competency.		
18) Rudeness of nurse assistants.		
19) The professor who guided practice lacked professionalism.		
20) Being provided with nothing except comfort during field guidance.		
21) Just trying to read other people's faces as they just told me to do searches myself without informing of anything on the grounds that they were busy.		
22) Wanting them to teach what nurses actually do.		
23) Being consoled by talking with colleagues		
24) Being consoled by patients		
25) Waiting for the field instructor		
26) Learning by observation and performance in the hospital	10) Getting a boost from the field instructor	5. Being on the way to becoming a nurse
27) Active teaching from nurses		
28) Being accompanied all the time during nursing performance		
29) Learning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nurses and students	11) Learning through relationships	
30) Building rapport with patients		

31) Feeling unburdened when finishing practice and regret over not doing better.	12) Moving forward through introspection	
32) Doing mind control as I've never experienced practice.		
33) Teaching myself by watching how nurses work.		
34) Building a sense of responsibility.		
35) Preparing systemized education that offers chances to learn.	13) Shortage of opportunity for educational practice	6. Practical education of higher quality is desperately needed
36) Offering chances to gain hands-on experience instead of observing.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실습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병동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궁금하고 선생님들은 어떤 업무를 어떤 자세로 하게 될지 궁금했기 때문에 알아보고 싶었고.....” (참여자 9)

“내가 직접 병동에 투입되어 간호행위를 할 수 있음에 설레기도하고 어쩌면 내손으로 해보겠다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참여자 6)

## 2) 실습환경에 대한 두려움

실습이라는 새로운 공간과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 새로운 사람들과 환자를 대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실습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악몽에 시달려 잠도 못자고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실습을 맞이하였다. 특히, 처음으로 맞이하는 병원이라는 실습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보였다.

“병원이라는 곳은 아플 때 말고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실습 나가는 날은 밤에 잠도 잘 못자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버스 갈아타고... 첫 실습이 겨울이었잖아요, 아침은 왜 그렇게 어둡고 배는 그렇게 고프지.....” (참여자 19)

“7월 24일에 실습시작인데 23일에는 실습지에 와야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동안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어요. 너무 예민하고 무섭고 악몽 꾸고 그랬거든요. 애들이랑 병원 앞에 왔을 때 그랬거든요 ‘공부 많이 했냐?’, ‘혈압수치 모더라?’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것들 물어보고 그랬어요.....” (참여자 16)

## 주제모음 2. 정체성의 혼돈

주제모음 2는 두개의 주제로 ‘존재감을 잃어감’, ‘간호사에 대한 회의감이 듦’으로 구성되었다.

임상실습은 간호사가 일하는 모습을 제일 가까이에서 보면서 배울 수 있어, 첫 간호사의 길을 걸을 때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빠르게 일도 배울 수 있으며, 실습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막상 실습을 나갔을 때 자신이 어디에서 있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의미한 제스처만 하게 되고 위축되고 소심한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간호사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생각을 전하여 간호사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존재감을 잃어감

학생들은 특히, 첫 실습에서 아는 것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관찰해야 하는지 구분이 안 되어 힘들어 하였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서서 관찰만 하게 되고 어디에 서있어야 될지 몰라 무의미한 제스처만 하게 된다고 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생님들 눈치를 보며 앉아있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서 아는 게 없어 더욱 위축되고 소심한 모습으로 스스로의 존재를 ‘투명 인간 같은 존재’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첫 실습이다 보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관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몰라서 실습하는 2주가 많이 힘든 실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다 보

니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선생님께 많이 혼나기도 하였습니다.” (참여자 15)

“병풍이라고 하면 그냥 서있기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뭘 하는 게 차라리 훨 낫고, 하지만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무의미한 제스처만 했어요, 제가 할게요라는 제스처만 하고.....” (참여자 16)

“애들도 저도 좀 위축되어 있고 소심한 것 같아요. 배우려는 의지만큼 용기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참여자 16)

## 2) 간호사에 대한 회의감이 들

직접 임상에서 간호사를 관찰하면서 막상 신규간호사로서 일을 하러 와야 한다는 현실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신규간호사들이 학생들 앞에서 혼날 때 자신의 앞날을 보는 것 같아 취업에 대한 갈등과 간호사들이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질문말을 할 때 간호사에 대한 회의감을 나타내었다.

“신규간호사들이 학생들 앞에서 혼나는 걸 보면 내가 결국 이런 길을 가게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죠..... 병원에 가면 이 병원에 취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병원은 실습 다녀오면 완전히 취업하기 싫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간호사들이 병원 실습할 때마다 ‘간호사를 왜 하냐?’ 이런 얘기도 하니까 학생으로 실습을 나왔는데 왜 이런 얘기를 맨날 들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참여자 19)

## 주제모음 3. 직접간호 경험과 다양성 결여

주제모음 3은 2개의 주제로 ‘관망자로서 배움의 기회가 적어짐’, ‘직접간호수행과 다양한 실습 부서에 대한 갈망’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닌 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실습에 임하지만, 실제 실습은 주로 관찰위주의 실습이나 관찰기회 조차 없어, 배움의 기회에 대한 아쉬움을 나

타내었다. 또한 직접해보는다면 신규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직접간호수행에 대한 간절함과 다양한 부서를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 1) 관망자로서 배움의 기회가 적어짐

학생들의 실습은 주로 관찰위주의 실습으로 단순히 간호사를 따라다니면서 단순 처치를 관찰하거나 관찰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간호사로 인해 관찰의 기회조차 없어 지루해하거나 배움의 기회가 없어 속상함을 나타내었다.

“관찰 위주의 실습은 시간이 안 가고 지루합니다. 특히 OR실습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도 시켜주면 내가 활동 하고 더 머리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따라다니면서 뭐하는지 보는 것은 아무래도 병동은 전부 수액 투약 밖에 없다보니 지루한 것 같아요.” (참여자 3)

“따로 쫓아다니라는 말도 안 했고 배액관 비우는 일 조차 맡기지 않으셔서 그저 보는 것만 많았고 가끔 예민한 간호사 선생님들은 보지 말라고 하셔서 첫 실습해보다는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적었어요.” (참여자 11)

### 2) 직접간호수행과 다양한 실습 부서에 대한 갈망

대부분 실습이 관찰 위주로 다양한 부서를 골고루 경험할 수 없었고,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이 직접수행을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직접수행에 대한 간절함이 많았다.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직접수행이 많이 없어 배운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실습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다.

“대부분 실습이 직접수행보다는 관찰 위주의 실습이고 다양한 부서를 골고루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어요.” (참여자 18)

“실습 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한번 해보면 나중엔 잘할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싶었죠, IV line 잡는 것도 해보고 싶는데 ‘많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해보는 것들을 많이 해보고 싶는데,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못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하고 싶다고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여자20)

#### 주제모음 4. 우호적이지 못한 실습환경

주제모음 4는 두개의 주제로 ‘인정받지 못함’, ‘책임성 있는 임상현장 지도자의 부재’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실습병동에 갔을 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 홀로 남겨진 기분 속에 관찰위주의 실습으로 아무것도 안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과도한 V/S과 환자이송 등 간호 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경험하게 되어 간호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또한, 실습 시 모르는 부분이나 실습에 대한 팁을 받기를 원했지만, 현장에 순회오는 지도교수의 위로에 그친 전문성 없는 지도에 아쉬움을 나타냈으며, 검색하라고만 하고 알려주지 않는 간호사의 태도에 책임성 있는 현장지도자의 가르침에 대한 바람을 나타내었다.

##### 1) 인정받지 못함

실습지에 따른 실습환경이 배우는 것이 아닌 V/S 체크하는데 시간을 보내거나 환자이송이나 다른 잡일 때문에 실제 다른 관찰이나 경험은 못하고 간호보조인력으로 대하여 아쉬움이 들었다.

처음 실습병동 갔을 때 자신들의 일만하고 학생들에게는 관심조차 두지 않아 무관심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었고 인사도 받아주지 않는 등 투명인간 취급을 하였다. 심지어 간병인이나 간호조무사가 학생들에게 본인들의 일을 시키는 무례함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너무 과도한 업무, 예를 들어 V/S를 체크하는데 너무 많은 환자가 할당되어 다른 관찰이나 경험은 하지 못하고 병원의 한 업무에만 시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실습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참여자 6)

“학생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음..... V/S? 환자 이송? 그래도 제가 실습시간 병원들은 학생들한테 잡일은 안 시켰는데.....그런 일 많이 시키는 데도 있

다고 하더라고요.....” (참여자 19)

“실습병동에 갔는데 아무도 쳐다 봐주지 않고 다들 자기일만하고 있더라고요...수간호사가 와서야 실습학생이냐며 신경써주고... 그 때까지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참여자 19)

“제가 병풍처럼 있는 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하고 그리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거든요, 인사를 안 받아주세요, 쳐다만 봐 주시거나 네라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그냥 보시지도 않은 간호사님도 계시고, 짜려보는 간호사님도 계시는데 친구들이 짜려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요. 또 뭐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시키셨으면 좋겠는데 또 못 알아들으면 짜증내고.....” (참여자 16)

“하루 실습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질문을 해도 바쁘다는 말만 돌아올 때는 실습을 하러 나온 것 인지 병풍처럼 시간만 보내려고 온 건지 헷갈릴 때도 많아요.” (참여자 7)

“어르신이니깐 앞에서는 기분 나쁜 티는 안내도, 뒤에서는, 아무리 학생이라도 배우러 온 학생인데 너무 막대할 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다. 같이 일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어르신이니깐 버릇없게는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만 그렇게 하시고, 자기네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간병인 분들이 “이것 좀 꺼내와 저것 좀 꺼내줘~” 이런 식, 도와주러 가면 “됐다고~뭘 아냐구” 이야기 하셨다.” (참여자 20)

##### 2) 책임성 있는 임상현장지도자의 부재

첫 실습 나갔을 때 학생들은 간호사들이 실제로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길 바라지만, 간호사들이 하나씩 알려주지 않고 물어봐도 검색하라고 하고 바쁘다고 알려주지 않아 물어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게 된다고 하였다. 병원에 실습지도 오는 교수도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주고 답소만 나누는 느낌이 들고 구체적인 물음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을 묻고 일상적인 질문에 대한 실망감과 시험을 봐도 기억에 안남아 현장지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병원에 실습지도 오는 교수님도 병원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오는 게 좋은 것 같고... 가끔은 물어보면 모르는 교수님들도 있어서 많이 아는 분이 실습지도 하는 것도 좋은 실습인거 같고.....” (참여자 16)

“교수님들 오셔서 요번 주는 어땠어?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대부분 답소 나누는 느낌이어서 실습에 관한 팁을 받는 게 아니라 위로 받고 잠깐 쉬는 타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을 봐도 기억에 안 남아요. 정말 실습만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참여자 19)

“첫 실습가면 선생님들이 하나씩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눈치보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다.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다들 바쁘시니까 여쭙봐도 되는지 눈치보이다보니 여쭙보지 못하고, 첫 실습 때는 아무 것도 못하고 눈치보고 서있는 것이 힘들었다.” (참여자 20)

“사실 학교에서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임상에서 계신 분들이 설명을 포함해서 실제로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못하니까 그 분들이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불려고 하고 노력하고 말하는 거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참여자 16)

## 주제모음 5. 간호사의 길로 나아가기

주제모음 5는 네개의 주제로 ‘위로받음’, ‘현장지도자에게서 힘 받기’, ‘관계 속에서 배워감’, ‘성찰을 통해 나아감’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동료들과 병동이나 병원마다 분위기나 실습과제 등 각자 실습한 병원이나 병동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안락사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처치 중 특이한 경험이나 힘들었던 점, 사례, 과제 등을 공유하였다. 힘들 때, 환자들이나 환자보호자들을 통해 위로받기도 하였고, 간호사와 서로 소통하면서 관찰과 직접간호수행을 하면서 간호에 대해 알아갔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작은 칭찬에서 학습동기가 유발되고 학습에 적극성을 갖게 되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실습에 대해 스스로 마인드컨트를 하기도 하고 때로

는 한 과목의 실습이 끝날 때 후련함과 잘하지 못함에 대한 후회를 안고 간호사가 일하는 모습을 통해 스스로 터득해 나가면서 책임감을 갖고 간호사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 1) 위로받음

학생들은 각자 실습 한 병동이나 병원에 따라 주의해야 할 것, 준비해야 할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실습 중 힘들었던 일이나 속상했던 일을 서로 이야기 하면서 동료들과 이야기 하면서 위로받거나 환자나 보호자들과 라포를 형성하면서 환자들에게 무언가 해주었다는 생각에 위로를 받기도 하였다.

“내가 어떤 파트에서 일하고 싶은지, 어떤 파트에 가기 싫은지.....중략..... ICU 같은 곳을 다녀오면, 혼수 상태인 환자분들을 보면서 돌아오는 길에 안락사와 같은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 각자 생각을 이야기 하기도 해요, 아니면 책에서 본 처치 중 특이한 것들에 대한 경험, 실습지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시 선생님께 혼나서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참여자 1)

“실습 중 힘들었던 일이나 속상했던 일을 서로 얘기하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재밌는 상황이나 보기 드문 술기를 본 날이면 이런 것도 봤다고 신기하다고 자랑도 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물어보기도 해요.” (참여자 10)

“정신과 실습 갔을 때 마침 크리스마스 시즌에 분위기가 침체된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실습 하는 친구들이 밝게 노래도 가르쳐 주었고, 2주 텀이 지나고 나니 환자가 밝아지는 모습이 눈에 보이게 되었다. 그때 수간호사 선생님께서 ‘너희는 실습 잘한 것 같다’며 ‘너희 오고 나서 환자들 많이 밝아진 것 같다’라고 말씀 하셔서, 병상에서 환자들에게 무언가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고 기억에 남아요.” (참여자 20)

### 2) 현장지도자에게서 힘 받기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을 실제 임상실습에서 직접경험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배워갔으며, 케이스스터디를 통해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간호사의 적극적인 가르침과 칭찬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관찰도 하고 직접 경험을 해보면 나중에 임상에 나갔을 때 훨씬 수월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상실습을 하면서 케이스스터디를 하고나면 공부했던 질병은 완벽히 학습할 수 있었던 점이 뿌듯했어요.” (참여자 10)

“처음에 궁금한 것도 질문 많이 못 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먼저 궁금한 거 없는지 물어봐주시고 먼저 손내밀어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 기억이 나요. 마지막 날 칭찬도 해주셨는데 그 칭찬 덕분에 적극적으로 변하게 됐어요.” (참여자 16)

“환자에게 IM, IV와 같은 처치를 처음으로 했을 때의 성취감과 미혼모 산모에게 등 마사지를 해주며 느낀 뿌듯함을 떠올리며 간호사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참여자 18)

### 3) 관계 속에 배워감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간호사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간호사가 수행할 때 질문을 하여 서로간의 소통이 많이 될수록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었으며 환자들과 라포 형성을 하면서 배워나갔다.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액팅을 하러 가시면 따라가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왜 그렇게 하는지 질문하여 답변을 받고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들과 간호학생간의 의사소통이 많이 될수록 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실습인 것 같아요.” (참여자 4)

“실습기관에서 했던 첫 실습은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해주시고 잘 가르쳐주셔서 적응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섭다는 생각도 금세 없어지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참여자 17)

### 4) 성찰을 통해 나아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실습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란 마인드 컨트롤하기도 하고 하나의 실습이 끝날 때 후련하면서도 잘하지 못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다음 실습지에서는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

며 간호사가 일하는 모습을 통해 스스로 터득해 나가며 점점 책임감이 형성되었다.

“각 과마다 다른 병원의 실습을 돌고나면, 후련하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스로 실습을 잘 마무리 하였고, 실습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어쩌면 다시는 돌리볼 수 없는 파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끝남과 동시에 다음 실습지에서는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되었어요.” (참여자 6)

“간호학부생이 되면서 1~2학년 때는 선배들의 실습경험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렘 반 두려움 반이라는 생각이 컸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실습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병동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궁금하고 선생님들은 어떤 업무를 어떤 자세로 하게 될지 궁금했기 때문에 알아보고 싶었고, 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였을 때, 그러한 분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나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참여자 9)

“첫 임상실습을 R 병원 os 파트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술이 정말 많아서 수술전후 간호를 매일 볼 수 있었는데, 처음 보는 거라 처음에는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당황도 많이 했었지만 많이 보다 보니까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낮가림이 많아서 첫날에 진짜 병풍처럼 가만히 있다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궁금한 것도 질문 많이 못 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먼저 궁금한 거 없는지 물어봐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 기억이 나요. 마지막 날 칭찬도 해주셨는데 그 칭찬 덕분에 적극적으로 변하게 됐어요.” (참여자 1)

“막연하게만 생각해 왔던 간호사를 직접 보면서 ‘간호사라는 직업은 정말 힘들구나, 많은 책임감이 요구되구나,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통해 한층 더 내가 성숙해 질 수 있고, 임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12)

“실습했을 때 책임감이 생겨요, 좀 더 열심히 해야겠

다. J-P bag을 차고 계신 외과환자분이 있었는데 색깔이 피어야 되는데 아닌 것 같고, 기름이 똥똥 더 다니는 것 같아서 학생이 간호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냥보고 알겠어요 하고 노티를 안해서...중략...그래서 그 환자분 다시 수술하러 가셨거든요. 환자가 그래서 밥 또 못 먹고 또 수술해야하냐는 식으로 말씀하는 거 보면서 책임감 있게 모든지 해야겠다.” (참여자 16)

### 주제모음 6. 실습교육의 질 향상이 절실함

주제모음 6는 한개의 주제로 ‘교육적 실습기회 부족’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관찰위주의 실습보다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간단한 술기는 직접 간호사의 지도아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좀 더 직접적인 수행기회를 갖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일대일 담당간호사나 프리셉터 등 좀 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어 직접 해보는 실습을 질 좋은 실습이라고 생각하였다.

#### 1) 교육적 실습기회 부족

학생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체계적인 교육 마련과 관찰보다는 직접수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접수행을 통해 더 흥미롭고 기억에 오래 남는 실습이 되길 원하였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실습이 질 높은 실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 별로 일대일 담당 간호사선생님들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교육되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여자 9)

“우리학교는 대학병원에 많이 나가고 그리고 4학년 2학기 때는 희망자에 한해서 프리셉터 실습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많은 케이스를 볼 수 있는 게 좋은 실습인거 같아요. 학교에서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서 시간만 채우고 오는 그런 실습보다는 실습 나가기 전에 핵심술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관찰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참여자 18)

“실습 시간의 거의 대부분이 관찰실습이고 병동 심부름이 전부인 실습과목도 있었고 아닌 과목도 있었는데 확실히 내가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실습과목

이 더 재미있었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더 많았어요. 같은 일이라도 관찰 10번보다 수행 1번이 더 흥미있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 IV. 논 의

본 연구는 전문대학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경험이 무엇인지 서술하여 그 경험에 대한 의미의 본질을 탐색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으로서 전문대학 임상실습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 모색과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으로 임상 수행능력이 뛰어난 간호사를 배출하는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전문대학 간호학생들이 인식하는 임상 실습 경험의 의미는 총143개의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36개의 구성된 의미와 13개의 주제와 6개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핵심범주는 “주변인에서 주체자가 되어감”으로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의 임상실습에 대한 경험은 ‘현장 실습에 대한 양가감정’, ‘정체성의 혼돈’, ‘직접간호경험과 다양성 결여’, ‘우호적이지 못한 실습환경’, ‘간호사의 길로 나아가기’, ‘실습교육의 질 향상이 절실함’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주제모음인 ‘현장 실습에 대한 양가감정’에는 ‘현장실습에 대한 기대감’과 ‘실습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 개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매 실습 시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고 이와 반대로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병원환경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부담스러워 하여 실습환경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나타나 현장실습을 경험하면서 양가감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Back[22], Kim 등[6]의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들은 다양한 실습환경에 대한 기대와 학교에서 이론수업으로 학습하였던 내용을 실제 임상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됨으로써 실습 시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각오를 다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됨을 알 수 있었고 학생들이 인식하는 기대감은 임상실습 현장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학생들의 실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실습교육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장실습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인식으로 실습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익숙하지 않은 병원환경에서 실습하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고 부담감을 느낀다고 한 Kim 등[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확인되었으며, Park과 Ha[16]는 학생들은 새로운 환자를 접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두려움을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교육과정에는 시뮬레이션 수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소한 의료장비와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익혀 자신감을 강화시키고 병원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두 번째 주제모음인 ‘정체성의 혼돈’에는 ‘존재감 잃어감’과 ‘간호사에 대한 회의감이 듦’으로 두 개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임상실습 시 본인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은 인식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 추후 본인이 간호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게 되어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4]. Park과 Kim[23]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은 간호사들의 무관심과 자신의 역할이 모호함으로 인해 자존감 저하를 비롯해 간호사에 대한 회의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ark과 Kim[24]에서도 학생들은 예측이 어려운 낮은 임상실습현장의 제한된 역할 속에서도 존재감 없는 무력한 자신을 깨닫고 의미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간호학생들이 본인 스스로 존재감을 잃거나 간호사로서의 회의감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임상실습 전 준비과정과 임상실습 끝난 후 실습경험에 대해

직접 상담과 교육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습지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 주제모음인 ‘직접간호경험과 다양성 결여’에는 ‘관망자로 배우의 기회가 적음’과 ‘직접수행과 다양한 실습부서에 대한 갈망’으로 두 개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직접 간호를 시행해 보고 싶은 마음이 크게 나타났으며 관찰 조차 못하게 하여 배우의 기회가 적어짐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어 직접수행과 다양한 실습부서에 대한 갈망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Son 등[25]의 연구에서도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 시에 관찰위주 실습의 아쉬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되며, Park[26]의 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이 관찰조차 못하게 하여 배우의 기회가 적어짐과 간호사들의 교육 시에 권위적이고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태도, 다양하지 못한 실습환경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여 본 연구와 같다.

연구 참여자들은 임상실습 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실습에 임하게 되지만 관찰 위주의 실습과 다양하지 못한 실습부서로 부정적인 환경에 자주 노출이 된다 면 연구 참여자들은 간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수자는 임상실습기관과 끊임없는 접촉을 통하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주제모음인 ‘우호적이지 못한 실습환경’에는 ‘인정받지 못함’과 ‘책임성 있는 임상 현장 지도자의 부재’로 두 개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우호적이지 못한 실습환경으로 본인 스스로의 자신이 간호보조 인력으로 대하는 느낌이 들어 아쉬운 감정과, 실습지에서 무관심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듦, 투명인간으로 여겨짐,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으로 환자와의 관계가 어려움, 간호보조 인력들의 무례함이 나타나 임상실습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ark과 Ha[16]의 연구결과에서는 간호 대학생들은 제대로 된 임상실습을 하고 싶어 하며 간호학생으로서 대우 받고 싶으면서도 결국에는 간호학생들 부정

적으로 생각하기보다 환자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실습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Jeong과 Park[27]의 연구에서도 ‘안정적이지 않은 실습여건, 환자와의 어려운 관계, 학생신분으로서의 역할한계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간호학생들은 부정적인 임상실습에 대한 인식 보다는 임상실습 시 인식되는 긍정적인 면을 고취시켜 미래의 간호사로서 대상자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책임성 있는 임상 현장의 지도자의 부재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실습지도 시 교수의 전문성이 없음, 위로에 그친 현장지도, 검색하라고만 하고 바쁘다고 알려주지 않아 눈치만 보게 됨, 실제로 하는 것을 가르쳐주길 바라는 것으로 현장지도자와 간호사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였다. Park 등[28]에서 실습지도교수들은 임상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을 위해 실습 과제나 목표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경험에 대해 강조하고, 질문시 구체적인 제시를 통해 반성적 과정으로 스스로 문제를 알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긍정적인 대처 자세를 가지고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Seo와 Kim[29]의 연구에서는 미국병원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인 경우에는 임상실습지도자의 자세한 가르침으로 존중받으면서 교육을 받았다고 서술하여 본 연구결과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 현장지도자들의 구체적인 교육과 현장에서 지도하는 의료인의 책임의식이 고취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조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주제모음인 ‘간호사의 길로 나아가기’에는 ‘위로받음’과 ‘현장지도자에게서 힘 받기’, ‘관계속에서 배워감’, ‘성찰을 통해 나아감’으로 네 개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과정에서 자신의 미숙함을 극복하고 현장지도자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간호사와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노력과 상호 작용을 통해 성

숙해지고, 간호학생으로서 스스로 심신을 다스리며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Park과 Ha[16]의 연구에서 임상실습경험의 하나로, 간호사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고 인정받고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내적 성숙의 경험이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Kim 등[6]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은 실습을 통해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들도 미래에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였다. Park과 Oh[30]는 실습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임상실습 시작하였을 때와는 다른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임상현장에 적응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진로분야인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Park 등[28]의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은 환자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간호사와 교수와의 관계속에서 자신의 임상실습에 대해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간호사가 된 본인의 모습을 떠올려 보고 부족함을 확인하여 노력하는 등 내적으로 성숙해짐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임상실습에서 접촉할 수 있는 환자, 간호사, 교수, 동료와의 긍정적 관심과 인정으로 참된 간호사의 길을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을 통해 올바른 간호사의 길을 갈수 있도록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내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임상 교육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주제모음인 ‘실습교육의 질 향상이 절실히 함’에는 ‘교육적 실습기회 부족’로 한 개의 주제모음을 포함하고 있다. 임상실습교육에서 실습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간호교육기관은 간호학생 수의 양적 팽창으로 인하여 우수한 실습기관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며 학생들은 간호 대상자들의 거부로 인하여 관찰 위주의 실습을 주로 하고 있으며, 임상실습의 질적 저하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전공에 대한 회의감도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현실과 다른 미국병원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인 경우에는 임상실습이 긍정적인 경

험이 많다. Seo와 Kim[29]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임상 실습 시 안전한 교육환경, 간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는 환경을 경험하여 간호직에 대한 긍지와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존중받는 간호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어 결국 간호사에 대한 확고한 꿈과 정체성을 갖게 된 결과를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병원에서 환자중심적인 전인간호의 실천 현장을 경험한 간호학생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한국 간호현장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현장은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일련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미국병원과 유사한 임상실습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교수자나 학생 의료인들 모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현장을 조성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문대학 간호대학생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에 대한 경험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전문대학 임상실습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 모색과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으로 임상 수행능력이 우수한 간호사를 배출하는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전국 10개의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성인간호학실습, 여성간호학실습, 아동간호학실습, 노인간호학실습 등을 경험한 학생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실습 경험에 대해 심층 면담을 통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37개의 의미 구성되었고 13개의 주제와 6개의 주제모음 ‘현장 실습에 대한 양가감정’, ‘정체성의 혼돈’, ‘직접간호경험과 다양성 결여’, ‘우호적이지 못한 실습환경’, ‘간호사의 길로 나아가기’, ‘실습교육의 질 향상이 절실함’으로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임상실습 경험 시 긍정적인 내용

으로 간호행위에 대한 설레임과 현장실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제적인 관찰과 수행을 통한 성장로서 간호사의 길로 나아감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부정적인 내용으로는 실습환경에 대한 두려움, 기대와는 다른 현실 속에서 간호직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정체감을 혼돈하게 됨, 직접적인 간호경험의 부족과 다양성의 한계, 의료인력의 무관심과 무례함 속에서 우호적이지 못한 실습환경의 경험 등을 볼 수 있다.

임상실습 경험 시 연구 참여자들은 긍정적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경험해가면서 최후에는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인식을 갖고 전문 간호사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질 좋은 임상 실습을 경험을 할 수 있는 임상실습 현장구축과 간호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조성이 필요하다. 추후연구에서는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와 이들의 부정적인 임상실습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임상실습지도자를 대상으로 임상실습지도에 대한 경험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 References

1. Ha NS, Choi MS.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styles and self-esteem,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005;11(1):13-21.
2. Lee AK, You HS, Park IH.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015;21(2):154-163.
3. Lee EJ, Jun WH. Sense of coherence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3;19(2):163-171.
4. Lee, KE Ha NA, Kil S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sclosur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0;30(3):571-583.
5. Cho IY. The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6):3635-2647.
  6. Kim JS, Sun JJ, Kim H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2009;10(1):63-76.
  7. Moon MS. Nursing students' initial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98;4(1):15-27.
  8. Park SJ, Park BJ. Relationship of clinical practice stress to clinical competence among one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tress Medicine*. 2013;21(4):313-322.
  9. Park MY. Nursing students' stress and anger experience in the clinical setting.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1;21(4): 313-322.
  10. Han SY, Lee YM.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ger and fatigue among stress factor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012;13(2):554-561.
  11. Kim HS. The relationship among personality type,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03;12(4):385-393.
  12. Cho MH, Kwon IS.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n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7;13(2):143-154.
  13. Whang SJ.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 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6;12(2):205-213.
  14. Han SJ. A study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0;6(1):132-146.
  15. Yang JJ. The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9;15(2): 159-165.
  16. Park JW, Ha NS.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3; 12(1):27-35.
  17. Suh MS. The study on the experience of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using Q-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1;10(4):686-698.
  18. Yang JH. The experience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2005;6(2):51-64.
  19. Colaizzi PE.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ils, R. S.,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20. Guba EG, Lincoln YS.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Sage Publications; 1989. p.1-296.
  21. Colaizzi PF.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lle RS, King M, editor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48-71.
  22. Baek KS. Experiences of newborn nursery care practice among the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2006;7(1):25-37.
  23. Park MY, Kim SY.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udents' first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0;9(1): 23-35.
  24. Park KO, Kim JK. A study on experience of transition from new clinical nurse to competent step.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 Education. 2013;19(4):594-605.
25. Son HM, Koh MH, Kim CM, Moon, JH. The clinical experiences of adaptation as a new nursing staff.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1;31(6): 988-997.
26. Park MY. Nursing Students' Stress and Anger Experience in the Clinical Setting.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1;7(1): 7-21.
27. Jeong SH, Park SH. Relationship among stress, depression, and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Rehabilitation Nursing*. 2013;16(1)47-54.
28. Park EJ, Kim CM, Lim SJ. Role translation from clinical nurse to case manager for medical-aid beneficiaries: Taking root in a barren lan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2; 42(2):149-160.
29. Seo KS, Kim MY. Clinical work experience of Korean immigrant nurses in U. S.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6;46(2):238-248.
30. Park HJ, Oh JW.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4;12(12):417-426.
-